

페리 필립스 박사, 역사지리학 개론: 1 강 , 두 지역 사이의 땅

이스라엘의 역사지리에 관한 6회 강연 시리즈는 예루살렘 시온산에 위치한 예루살렘 대학교에서 오랫동안 강의해 온 페리 필립스 박사와 일레인 필립스 박사가 진행합니다. 페리 필립스 박사는 '이스라엘은 그 사이에 있는 땅이다' 라는 주제로 강연 시리즈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저는 페리 필립스입니다. 역사지리학 강좌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번이 첫 번째 강좌입니다. 바로 '그 사이의 땅', 왜 하필 이스라엘 땅이냐는 주제입니다.

이스라엘 땅은 성경 연구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버몬트 주 크기만 한 이 작은 땅이 왜 성경 역사에 그토록 중요한지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고든 칼리지 와 예루살렘에 있는 예루살렘 대학교에서 역사지리학을 여러 차례 강의했습니다. 첫 번째 강의 주제는 '그 사이의 땅', 바로 이스라엘 땅입니다.

여기 이스라엘 지도가 있습니다. 미국과 비교하자면, 버몬트 주나 뉴저지 주 정도 크기입니다. 이번 강의에서 우리가 묻고 답하고자 하는 질문은 바로 이스라엘이 왜 그토록 중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우선 이스라엘을 중동이라는 맥락 속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아주 익숙한 지도에서, 우리는 바로 이 작은 지역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은 중동의 다른 국가들에 비해 매우 작은 나라입니다 .

그리스에서 사우디아라비아까지, 그리고 다시 터키를 거쳐 이집트까지 쪽 내려가다 보면 이스라엘이 어떤 면에서는 교차로에 서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겠죠. 우선 , 그 사이에 있는 땅은 바다와 사막 사이에 있습니다. 바다는 지중해를 말하는 겁니다.

서쪽으로, 그리고 동쪽으로 가면 이 지역에 사우디아라비아 사막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바다와 사막에서 볼 수 있는 대조적인 모습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우선 바다는 시원하고 산들바람이 불며 습한 이미지를 떠올리게 합니다 . 이는 덥고 바람이 많이 불며 건조한 사막과는 매우 대조적입니다.

뜨겁고 건조한 천체와 시원하고 습한 천체, 이렇게 서로 다른 유형의 천체들이 만나면서 이스라엘 땅에는 매우 흥미로운 기후 패턴이

나타냅니다. 더 자세히 살펴보기 전에, 이스라엘이 비옥한 초승달 지대에 속한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지역을 비옥한 초승달 지대라고 부르는 이유는 경작이 가능한 땅, 즉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의 모양이 마치 초승달처럼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발견한 것은 이 지역에서 다양한 형태의 농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선,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살펴보면, 거대한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흐르는데, 이곳에서는 관개 농업이 주를 이룹니다. 북부 지역에는 약간의 비가 내리지만, 주로 관개와 관개 수로를 통해 농사를 짓습니다.

이집트, 특히 나일강 삼각주 지역에서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그 중간 지역인 이스라엘, 그리고 오늘날의 레바논과 시리아를 포함하는 레반트 지역에서는 관개가 아닌 비가 내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흥미로운 성경 구절이 떠오릅니다.

신명기 11장 11절에는 “산과 골짜기의 땅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마신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명기에서 이스라엘 땅을 묘사하는 방식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시원하고 습한 물과 덥고 건조한 사막이 공존하는 이스라엘은 흥미로운 기후 패턴을 보입니다.

우선, 일일 풍향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현상이 나타납니다. 태양이 떠오르고 주변 지역이 가열되기 시작하면 사막은 물보다 더 많이 가열됩니다.

그 결과 사막의 공기가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공기가 상승하려면 어딘가에서 공기가 유입되어야 하는데, 그 공기가 유입되는 곳은 바로 바다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아침에는 공기가 비교적 잔잔 하지만, 태양이 사막 지역을 데우기 시작하면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상승하는 공기를 대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해안가에 있으면 오전 10시쯤부터 바닷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중요한 건 기온이 내려가기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이스라엘 주변 지역은 바닷바람 덕분에 낮 동안 시원한 날씨를 유지합니다.

해안가에 있는 텔아비브라고 가정해 보면, 오전 10시쯤부터 바닷바람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약 48~64km 떨어진 예루살렘에서는 정오쯤에 바닷바람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르단 동쪽에 있는 암만에서는 오후 늦게 바닷바람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핵심은 사막에서 상승 기류 로 인해 낮 동안 기온이 낮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때로 이러한 상황이 변하기도 합니다 . 바다에서 불어오는 공기의 흐름이 차단되는 경우가 있는데 , 이를 아랍어로는 ' 캄신 ', 히브리어로는 ' 슈라브' 라고 합니다 .

기본적으로 이러한 차단 으로 인해 바다나 지중해에서 불어오는 시원한 공기 대신 사막에서 불어오는 뜨겁고 건조하며 먼지 가득한 공기가 유입됩니다. 예레미야 4장에서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다루실지를 나타내는 데 캄신(khamsin)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는 것을 보면 흥미롭습니다. 주님께서는 바빌론 사람들이 침략하여 이스라엘 백성의 삶을 매우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4장 11절과 12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이 백성에게 이르되 사막의 메마른 산에서 불어오는 뜨거운 바람이 내 백성을 향하여 불어오나, 곡식을 고르거나 정결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 그건 너무 강해서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자, 슈라브 의식 중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려드릴게요 .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바다 에서 불어오는 부드러운 바람을 이용하여 곡식을 키질 합니다 . 즉, 곡식의 알맹이와 쪽정이를 공중으로 날려 보내는 것 입니다 . 쪽정이는 알맹이보다 훨씬 가볍기 때문에 바람에 날아가고, 알맹이만 남게 됩니다.

현대 이스라엘에서도 사람들이 하는 또 다른 일은 침구를 가져다가 발코니에 내놓고 털어서 먼지를 날려 보내는 것입니다 . 하지만 문제는 사막에서 불어오는 캄신 바람은 뜨겁고 먼지가 많으며 강해서 키질을 할 수도 없고, 바람을 이용해 먼지를 제거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빌로니아인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침략했을 때 이스라엘의 정치적 상황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징조입니다.

여기가 바로 캄신입니다. 저는 여러 캄신 에 가봤는데 , 정말 비참한 곳들이죠.

때로는 하루 이틀 정도 지속되기도 합니다. 한번은 약 2주 동안 지속되었는데, 마지막 날, 그러니까 3일째쯤 되면 사람들은 짜증을 내고 예민해져서 정말 힘든 상황이 되죠. 다행히도, 그보다 더 오래 지속되지는 않습니다.

점 때문에 흥미로운 강우 패턴을 보입니다 . 신명기 11장에서 이 모든 것을 보여주는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앞 슬라이드에서 언급했듯이, 이스라엘은 주변 지역과 달리 관개 시설이 아닌 강우에 의존하여 농사를 짓습니다.

주님께서서는 신명기 11장에서 이스라엘 땅을 묘사하실 때 이 점을 고려하셨습니다. 이 장은 우리가 나중에 살펴볼 내용의 토대를 마련해 주는 매우 중요한 장입니다. 그러므로 본문 전체를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신명기 11장 8절에서 17절을 보십시오. 주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오늘 너희에게 주는 모든 명령을 지켜라. 그리하면 너희가 요단 강을 건너가 차지할 땅을 정복할 힘을 얻을 것이며, 또 주님께서 너희 조상과 그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가 장수할 것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이야기는 잠시 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하지만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이 들어가 정복할 땅은 당신이 씨를 뿌리고 걸어서 물을 주어 채소밭을 일구었던 이집트 땅과는 다릅니다. 당신이 요단강을 건너 정복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많고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흠뻑 맞는 땅입니다. 잠시 말을 멈추겠습니다.

이집트에서 정원에 물을 준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했을까요? 아마도 관개 시설을 이용했을 것입니다. 비가 내리는 것이 아니었겠죠. 따라서 밭로 땅에 물을 준다는 말은 물레방아를 가리키는 것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쩌면 물레방아를 말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마치 자전거처럼 생긴 것에 바퀴가 달려 있어서 관개 수로에서 물을 끌어와 채소밭이나 원하는 곳에 부어주는 방식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가능성은 이집트 나일 강 주변의 토양이 모래질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밭로 작은 수로를 파고, 물을 준 후에는 밭로 흙을 그 수로에 다시 채워 넣고 또 다른 수로를 파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들어가야 할 땅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들어가려는 땅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흠뻑 맞을 땅입니다. 관개에 의존할 필요도 없고, 항상 그 자리에 있고 언제나 물을 공급해주는 나일강의 안정적인 흐름에 의존할 필요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12절부터 시작해서 다음과 같이 하십니다. “그 땅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시는 땅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눈은 연초부터 연말까지 그 땅을 항상 지켜보시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주는 명령,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온 마음과 온 영혼을 다하여 그분을 섬기라는 명령을 충실히 지킨다면, 내가 너희 땅에 제때에 비를 내려 주겠다. 가을비와

봄비를 모두 내려 주겠다. 이것은 신국제역(NIV)의 번역이다. 문자 그대로는 '늦은 비와 이른 비'이다.

이 비는 가을과 봄에 내립니다. 주님께서 이 비를 내려 주시어 너희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거둘 수 있게 하시고, 밭에 풀을 돋게 하여 너희 가축을 먹여 살리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다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조심하지 않으면 유혹에 넘어가 다른 신들을 숭배하고 절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진노가 여러분에게 임하여 하늘을 닫아 비가 내리지 않게 하시고 땅이 소출을 내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좋은 땅에서 여러분은 곧 멸망할 것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주님께서 강우를 주관하실 것이며, 강우의 형태는 백성의 순종에 달려 있습니다.

네, 비도 있지만 이슬도 있습니다. 이슬은 이스라엘의 일부 식물에 물을 주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슬은 바다에서 불어오는 시원하고 습한 바람이 밤에 불어올 때, 그 바람에 섞인 수분이 응결되어 땅에 맺히면서 생깁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스라엘에 물을 주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측면이 됩니다. 또한 성경에는 강우 패턴과 이슬에 관련된 영적인 비유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잠언 19장에는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왕의 노는 으르렁거리는 사자 같고 그의 은혜는 풀잎 위의 이슬 같다고 합니다.

아모스 1장 2절에서 아모스는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천둥을 치시니 갈멜산의 풀이 시들었다고 말합니다. 잠시 후 살펴보겠지만, 갈멜산의 풀은 거의 시들지 않습니다. 그 지역에는 항상 이슬과 비가 많이 내리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스라엘에는 흥미로운 기상 현상이 나타나는데, 여호와께서는 그곳에 사는 백성들의 순종을 바탕으로 이러한 기상 현상을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명기 11장의 핵심입니다. 제가 강우에 대해 언급했었죠.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저희가 가지고 있는 강우량 지도가 있습니다. 비교를 위해 말씀드리자면, 보스턴의 연평균 강우량은 42인치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는 평균치입니다. 이 지도에서 몇 가지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우선, 여기가 바로 예루살렘 북부, 헤르몬 산 지역입니다. 여기가 헤르몬 산이고, 이쪽이 카르멜 산이죠. 참고로 예루살렘도 바로 이 근처에

있습니다. 위도로 말씀드리자면, 예루살렘은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와 거의 같은 위도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북부 고지대, 헤르몬 산 주변에서도 강수량은 25인치(약 63.5cm)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즉, 그 지역의 강수량은 보스턴보다도 적습니다. 남쪽으로 내려가 브엘세바로 가보면, 제가 지금 가고 있는 곳은 성경에서 이스라엘 땅의 북쪽과 남쪽 끝으로 묘사되는 단에서 브엘세바까지입니다.

베르세바에서는 연간 강우량이 20cm(8인치) 정도면 운이 좋은 편입니다. 20cm(8인치)는 농사를 지을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기준점입니다. 20cm(8인치) 이상이면 농사를 지을 수 있지만, 그 이하면 농사가 어려워집니다.

알고 보니 농업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극단적인 경우입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싶은 지역 중 하나는 예루살렘인데, 예루살렘은 연간 강수량이 약 22인치(약 55cm)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쁘지 않네요. 농업용수로도 꽤 많이 공급해 줍니다. 제가 아모스 1장과 관련해서 언급했던 카르멜 산은 지중해로 튀어나온 산봉우리인데, 이곳에도 50cm가 넘는 비가 내립니다. 이스라엘의 한 지역, 즉 리프트 밸리 또는 요르단 계곡에는 사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해 바로 북쪽에 있는 예리코를 보면, 연간 강수량이 5인치(약 12.7cm)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비가 거의 오지 않는 곳이죠. 제게 겨울에 있었던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비가 좀 오는 날이었고, 저는 사람들에게 산악 지대의 경치를 보여주려고 했는데 비가 너무 많이 왔어요. 그래서 "이건 그냥 잊어버리고 예리코로 내려가자"라고 말했죠.

요르단 계곡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시간을 보내자. 거기엔 비가 절대 안 오거든. 그래서 예리코에 도착했는데, 버스에서 내리려는 순간, 내 인생에서 본 가장 심한 폭풍우 중 하나가 몰아쳤어. 말할 것도 없이, 그 후 여행 내내 그 일에 대한 잔소리를 들어야 했지.

페리, 여리고에 비가 오긴 하나요? 그리고 흥미로운 건, 비가 그친 후에 제가 평생 본 것 중 가장 아름다운 무지개가 떴다는 거예요. 물론, 그건 홍수 후에 주님께서 노아에게 하신 말씀, 즉 무지개를 보고 모든 피조물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며 다시는 홍수를 내리지 않겠다고 하신 말씀을 떠올리게 하죠. 어쨌든, 그곳이 요단 계곡이에요.

그리고 요르단 계곡을 가로질러 동쪽으로 더 가면, 오늘날 요르단은 어디죠? 바로 트랜스요르단 산맥입니다. 이곳에는 실제로 76cm 정도의 강수량이 기록됩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의 강수량에 대해 공통적인 특징을 알 수 있을 겁니다.

북쪽으로 갈수록, 그리고 해안에 가까워질수록 강수량이 증가합니다. 남쪽으로 갈수록, 그리고 동쪽으로 갈수록 강수량은 감소하지만, 고도에 따라서는 예외가 있습니다. 따라서 요르단의 이 지역처럼 동쪽에 위치한 고지대에서는 여전히 상당한 양의 비가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북쪽이나 서쪽으로 갈수록 고도가 높아지면서 비가 꽤 많이 내립니다. 반대로 동쪽이나 남쪽으로 내려가면서 고도가 낮아지고, 예를 들어 사해 쪽으로 가면 어떤 지역에서는 연간 강수량이 5cm도 채 안 되는 곳도 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일반적인 강수 패턴입니다.

방금 날씨, 즉 기후적인 측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갈릴리 호수나 사막에서 오는 사람들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정치적 상황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와 관련된 몇 가지 정치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들은 바다를 통해 들어와 땅을 정복한 민족입니다. 페니키아인들은 주로 오늘날의 레바논 지역에 정착했습니다. 그들은 훌륭한 항해사였습니다.

후에 블레셋 사람들이, 아마도 그리스 섬이나 그리스 본토에서 왔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스라엘 해안을 따라 정착했습니다. 실제로 오늘날 우리가 팔레스타인이라고 부르는 지역의 이름은 블레셋 사람들의 영향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리스인들도, 특히 알렉산더 대왕과 함께 이 지역에 들어왔습니다.

기원전 63년, 폼페이우스가 이끄는 로마군이 이 땅을 정복했습니다. 신약성경에도 당시 이스라엘 땅을 실질적으로 통치한 것은 로마인들이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후 십자군이 이슬람 세력으로부터 성지를 되찾기 위해 이 땅에 들어왔습니다.

영국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1917년 앨런비 장군이 터키로부터 그 땅을 정복했고, 영국 위임통치령이 되었습니다. 프랑스는 그보다 조금 앞서 나폴레옹 시대에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쟁 중에는 독일인들도 그랬죠.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인들 중에서도 서방 출신이 많다고 들 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문화와 정치관을

가져오고, 이것이 바로 바다를 통해 이스라엘에 들어오는 정치적 영향력입니다.

'바다 사람들' 이라고 부르는 이들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좀 더 국제적이고, 진보적이며, 현대적인 표현을 빌리자면 약간 더 자유주의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바다 출신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는 사례를 몇 가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입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삼손은 블레셋 여자와 결혼하게 될 예정이었어요. 그런데 일이 잘 풀리지 않았죠.

하지만 나중에 그가 그녀를 떠나 다시 돌아오려고 할 때, 그녀는 이미 다른 남자와 결혼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여우 몇 마리를 잡아 꼬리를 묶고 꼬리 끝에 횃불을 달아 블레셋 사람들의 발을 불태우 도둑 들판으로 내보냈습니다 .

피해 유다 땅으로 도망쳤습니다 .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우리는 삼손을 원한다."

그래서 그들은 삼손을 잡아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주려고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구절이 나옵니다. 사사기 15장 9절에서 11절 사이입니다.

그들이 삼손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삼손아, 우리를 다스리는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인 줄 모르느냐?" 이처럼 바다에서 건너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나귀 턱뼈를 붙잡고 자신을 잡으러 온 블레셋 사람들을 죽여서 탈출 에 성공합니다 . 사무엘상 13 장에서도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다시 한번 갈등이 나타납니다.

문제의 일부는 블레셋 사람들이 철을 다룰 줄 알았다는 점이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철 제련 기술을 매우 탐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철제 도구조차 갖지 못하게 했습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구를 가지고 있었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 내려가서 도구를 갈아야 했을 겁니다 . 여담이지만, 다윗은 블레셋 사람들과 얼마 동안 함께 지냈습니다. 아마도 다윗은 그때 철 제련술과 철을 다루는 기술을 배워서 이스라엘로 가져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후대에 이스라엘도 철을 보유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예수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할지 의논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의 외침과 가르침이 이스라엘 민족을

위험에 빠뜨린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때 대제사장은 “우리가 예수에 대해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으면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을 빼앗아 갈 것이라는 것을 모르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1장에서도 로마인들이 이스라엘 땅을 지배했던 모습이 다시 나타납니다.

고넬료는 가이사랴에 있었고, 이 이야기는 베드로가 가이사랴에 가서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바다가 이스라엘 땅의 날씨를 좌우할 수 있는 것처럼, 바다에서 온 사람들, 제가 해양 민족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땅을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바다가 지배력을 행사한다면, 사막도 마찬가지로 지배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막 출신의 여러 민족들이 이스라엘에 압력을 가하고 때로는 이스라엘을 정복했다는 이야기를 읽습니다. 사막의 정치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모압 땅의 모압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모압은 롯의 아들 중 하나였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우리는 에돔 족속이 이삭의 아들 중 하나인 이스마엘의 후손이라는 것을 읽습니다. 암몬 족속 역시 롯의 아들들입니다. 아말렉 족속은 이스라엘 남부 사막에 살면서 때때로 이스라엘을 침략했습니다.

케나이트족, 미디안족, 암몬족, 그리고 물론 그곳에 있었던 테르밋족도 빼놓을 수 없죠. 어쨌든 이것들은 사막 지역의 정치 상황이었고, 우리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특징지을 수 있을까요? 사막 거주자들을 어떻게 특징지을 수 있을까요? 좀 더 지역적이고, 약간 더 후진적이며, 조금 더 보수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부정적인 의미로 하는 말은 아니지만요. 조상들의 방식이나 전통을 고수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예는 더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사기 6장에는 미디안 사람들이 메뚜기 떼처럼 몰려와 이스라엘의 모든 것을 먹어치우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실제로 그들은 요단 계곡에서부터 해안을 따라 가자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전역을 장악한 것으로 보입니다. 역대기 20장에는 선량한 여호사밧 왕 시대에 사막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공격 하고 예루살렘을 기습 공격하려 했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사막이 정치적으로 이스라엘에 영향을 미치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이스라엘 땅에는 독특한 기후 패턴이 있고, 사막이나 바다에서 온 사람들이 함께 살면서 이러한 정치적, 물리적 상호작용으로 인해 끊임없이 갈등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적들은 더 멀리 떨어져 있는 국제적인 강대국들도 있습니다. 지도를 보고 이스라엘이 위치한 정중앙을 살펴보십시오. 그곳이 여러 나라, 즉 남북과 동서의 강대국들을 잇는 통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쪽에는 이집트가 있습니다. 이집트는 예로부터 이스라엘 땅에 큰 영향력을 행사해 왔습니다. 그리고 북쪽 메소포타미아 지역에는 이스라엘에 상당한 압력을 가하는 여러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북부에는 아시리아가 있었고, 이라크 지역에 해당하는 메소포타미아 남부에는 바빌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동쪽으로는 오늘날 이란 지역에 해당하는 메도-페르시아 제국이 있었죠. 서쪽으로는 앞서 언급한 그리스와 그 출신의 사람들,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인물은 알렉산더 대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서쪽으로 더 나아가면 로마가 있었는데, 로마는 이스라엘 땅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흥미롭게도 로마는 이스라엘에 정치적으로 영향을 주었지만, 바울이 로마에 복음을 전파했다는 점을 생각하면 그 반대의 영향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 모든 국제적인 세력의 중심에 위치해 있다는 점에 주목하십시오.

그리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은 북쪽으로는 터키, 남쪽으로는 이집트, 서쪽으로는 요르단, 이라크, 이란 등 매우 다양한 이슬람 국가들의 한가운데 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정치적으로 이스라엘은 단순히 바다와 사막 사이의 땅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둘러싼 거대한 무슬림 다수 세력 사이의 국제적인 경계에 서 있는 땅입니다. 흥미롭게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징벌하기 위해 국내의 적뿐 아니라 국제적인 적들도 사용하십니다. 역대기 2장 12장에서 솔로몬이 죽은 후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릅니다.

르호보암은 약 4년 동안 훌륭한 왕 이었지만, 그 후로 매우 교만해졌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그를 벌하고 그와 백성을 징계 하기 위해 이집트의 왕, 즉 파라오 시삭을 보내 이스라엘 땅을 공격하게 하였고, 결국 예루살렘까지 함락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역대기 2장 1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나라들도 이스라엘을 벌하기 위해 침략해 옵니다. 열왕기하 17장에는 앗수르 사람들이 북왕국을 멸망시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열왕기하 17장은 그 이유를 밝히고 있는데, 그것은 백성들이 신실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물론, 바빌로니아가 침략하여 남왕국을 멸망시켰습니다. 우리는 이 내용을 여러 구절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5장에서 이를 언급하고 있으며, 역대기 2장 36장에는 느부갓네살에게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매우 슬픈 이야기가 나옵니다.

페르시아는 에스라와 느헤미야 시대에 이스라엘에 영향을 미친 국가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는 구약과 신약 중간 시대에 존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서 언급했듯이 로마는 신약 시대에 존재했습니다.

자,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이스라엘 땅의 불안정한 상황을 고려할 때, 하나님은 왜 그들을 그곳으로 인도하셨을까요? 좀 더 안전한 나라나 지역으로 인도 하지 않으셨을까요? 골다 메이어의 흥미로운 말이 생각납니다. 그녀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이집트에서 나와 요단강을 건너고 대협곡을 지나 동쪽으로 갈 때, 북쪽이 아니라 남쪽으로 향했어야 했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들은 오른쪽으로 가는 대신 왼쪽으로 갔어야 했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만약 모세가 북쪽이 아닌 남쪽으로 갔다면, 지금처럼 석유가 풍부한 곳이 아니라 석유를 얻을 수 있는 곳에 도착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 땅의 불안정한 성질 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을 그곳으로 인도하셨는지에 대한 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스라엘은 신앙의 시험대라는 것입니다. 이는 예루살렘 대학교에서 강의했던 제 좋은 친구 짐 몬슨의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신앙의 시험대입니다.

살려면 하나님께 충실해야 합니다. 비가 내리도록 끊임없이 하나님께 의지해야 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말입니다.

물론 식량은 충분한 강수량에서 비롯되며, 적들로부터의 보호 또한 당연히 받아야 할 권리 입니다. 주님께서서는 그들이 자신에게 충실하면 국내외의 적들로부터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여 주기 위해, 우리가 이미 읽었던 신명기 7장과 11장을 다시 한번 참고하겠습니다.

자, 다시 지도로 돌아가서 우리가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이 지역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마 우리가 이곳을 선택하지는 않았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앞서 언급한 이유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곳에 살도록 선택 하셨습니다. 이곳은 다시 한번 믿음의 시험대입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이스라엘을 "중간 땅"으로 보는 관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이번 강연을 마무리하겠습니다.